metro
메트로 2013년 4월 26일 금요일 제2720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국대' 이시영 편파판정 논란

25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열린 '갤럭시 S4 월드투어 2013 서울' 행사에서 모델들이 머리가 8개인 옥타코어 칩을 탑재한 갤럭시S4를 선보이고 있다. 갤럭시S4는 26일부터 대리점에서 만날 수 있다. /연합뉴스

"쓸게 무척 많네" 갤럭시S4 세계 첫 출시

현존 스마트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갤럭시S4'가 세계 최초로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25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26일 한국 시장에 가장 먼저 갤럭시S4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갤럭시S4는 5인치 슈퍼아몰레드(AMOLED: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를 장착했으며 화면 해상도는 '풀HD급(1920×1080화소)'이다. 화면 밀도는 441ppi(인치당 화소 수)다.

화면 크기와 배터리 용량이 이전보다 커졌지만 두께 7.9㎜, 무게 130g으로 전작 갤럭시S3보다 가볍고 얇아졌다.

화면 앞 유리의 경우 코닝사의 강화 제품 '고릴라 글라스3'를 선택해 이전보다 내구성이 향상됐다.

동영상을 보다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재생을 잠시 멈추는 '삼성 스마트 포즈', 스마트폰을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삼성 스마트 스크롤', 센서를 활용한 건강관리 'S헬스' 등 이미 알려진 첨단 기능도 어김없이 탑재됐다.

아울러 갤럭시S4는 별도의 액세서리를 통해 무선 충전 기능도 지원한다. 가격은 32GB 기준 89만9000원이며 16·64GB 버전이 나오면 가격이 달라질 전망이다.

/박성훈기자 zen@

찔끔 3만원! 반값등록금 결국 쇼

수도권 대학 등록금 760만원 · 내리겠다 외치던 그 사람들 '감감무소식'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만1000원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해 총선·대선 당시 여야가 앞다퉈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선거가 끝나자 '헛헛한 공약'이 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5일 전국 4년제 일반 대학 173개교 주요 공시 내용을 분석해 올해 연간 평균 등록금이 667만8000원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인하율은 사립대 0.47%, 국·공립대 0.19%로 미미했다. 절대 액수는 사립대가 733만9000원으로 국·공립대 409만6000원보다 1.8배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0.73%, 비수도권이 0.30%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인하율이 높은 수도권 대학 등록금은 절대 금액(759만3000원)이 비수도권(621만9000원)과 비교해 140만원가량 높아 체감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학별 평균 등록금은 을지대 852만1000원, 연세대 850만7000원, 한국항공대 847만6000원, 이화여대 840만6000원, 추계예술대 838만7900원 순으로 높았다.

특히 올해 등록금 인하율은 0.46%에 그쳐 총·대선을 앞둔 지난해 등록금 인하율(4.3%)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지난해(670만9000원)에 비해 3만1000원 인하됐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당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을 늘려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새누리당 공약에 따라 관련 예산을 5250억원 증액한 2조7750억원으로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해 실질적인 장학금 인하 효과를 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연간 67만5000원에 불과해 체감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은 반값 등록금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대선 패배로 반값 등록금 등 정책이 민심에 반한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반값 등록금 조항을 삭제한 강령 정책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값 등록금 관련 항목을 찾을 수 없다.

국회 교문위 소속 한 의원은 "여야 모두 반값 등록금 예산을 이미 반영했다는 분위기이고, 정부는 올해 이어 가을 추경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올해 반값 등록금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반값 등록금, 그 말을 진짜 믿었나" "반값 등록금 공약 내건 정치인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자기 딸보다 어린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
서로 사랑했다는 49세 공무원

40대 후반 공무원이 딸보다 어린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돈을 준 사실이 밝혀졌으나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전남 완도경찰서는 목남군 소속 6급 공무원 A(49)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여중생 B(15)양을 만나 7~15차례 성관계를 하고 2만~5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자신을 35세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한다고 속인 채 만남을 지속했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은 B양이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 "결혼하고 싶은 오빠 곁의 여고생 언니들을 떼어내 달라"고 상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년이 지난 딸을 둔 이혼남으로 "B양을 사랑했고 성관계 후 돈을 준 것은 순수한 용돈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승리기자

뉴스 & 뉴스

1분기 GDP 0.9% 깜짝성장… 경기회복 기대감

●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4분기에 비해 0.9% 성장했다. 기대치를 넘어선 것으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밝혔던 예상치(0.8%)보다도 높은 수치다. 25일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GDP(속보치)가 전기 대비 0.9%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동기 대비 1.5% 성장했다. 실질 국내총소득은 교역 조건의 개선에 힘입어 1.0% 증가했다. 이는 건설 및 설비 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김지성기자

10억짜리 다이아반지 현대백화점 이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점에서 주얼리 브랜드 드비어스 의 10억원대 5.02캐럿 상할 셰크 앙(원픽)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고 셀린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놓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AI 가금류 배설물 통해 공기중 전파 가능성

●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금류 등의 배설물을 통해 공기 중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분자생물유행병학 전문가인 허이아상 대만 중앙연구원 박사는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는 H7N9형 AI 감염자의 40%가 가금류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25일 대만 연합보가 전했다. /조선미기자

'음주 운전하고도 공무원 아닌척' 지난해 887명

● 안전행정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으나 신분을 숨기다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난해 8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으면 누적 횟수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안행부는 공무원이 신분을 숨기더라도 사후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자와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대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리기자

<개성공단체류 한국 근로자>

176명 전원철수 유력

정부 "오늘 오전까지 시간주겠다… 남북실무회담 거부하면 중대조치"

정부가 25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17일 만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근무자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실무 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 당국이 26일 오전까지 당국 간 실무 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우리 측이 제의한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의에 따라 북한 당국의 태도는 물론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중대한 조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일각에서는 만일 북한이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우리 측 체류 인원 전원 철수와 공단 폐쇄 등의 단계로 옮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개성공단의 상징성과 천안함 사태 당시에도 유지됐다는 점을 들어 당장 폐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단 입주기업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실무 회담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남북 양측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철수 의사가 없음을 확고히 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측 근로자 176명이 남아있으며 이들은 생필품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동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모처럼 활짝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한철 헌재소장 등과 함께 어린이들의 축하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위엄 뽐내는 거북선 충무공 이순신 탄생 468주년을 기념해 25일 서울 청계천에서 '모형 거북선 경주대회'가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거북선을 물에 띄워 항주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신규 아파트에 담장 못세운다 잠실 5단지 등 시범추진

도시 경관과 잘 어울리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지어지는 서울 시내 아파트에는 담장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사람과 장소 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 개념을 마련하고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담장으로 가로막힌 아파트 단지를 지양하고 지역에 개방되고 연계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 시에는 기존 도로체계의 연속성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해 용도, 규모를 결정할 때는 주민 참여와 지역 특성을 전제로 진행한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도입해 법적 시설 중 경로당 등 필수 시설인 보육시설·작은도서관·경로당 등을 의무화하고, 지역문화센터·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권장 시설로 추가했다.

한편 이 같은 정책이 적용되는 대단지는 잠실5단지와 가락시영아파트가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박동호기자

자동차 가장 많은 도로 '자유로'… 하루 24만3000대

전국 도로 중 가장 많은 차량이 지나는 곳은 서울과 장항IC를 잇는 자유로 구간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24만3000대가 오가는 자유로가 전국 도로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뒤이어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운~인천 구간이 20만3000대, 경부고속도로 신갈~양재 구간이 20만2000대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적은 차량이 지나는 곳은 경북 경주 양남면과 양북면을 잇는 지방도 945호선으로 하루 49대다. /박동호기자

'이사 안가는' 대한민국

인구이동 38년만에 최저

극심한 취업난에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인구 이동이 38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지난해 8개월 연속 상승하던 출생아 수도 올해 들어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국내인구 이동을 보면 이동자는 66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5만5000명) 줄어 두 달째 감소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1975년(56만4000명) 이래 3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말하는 인구이동률도 지난달 1.31%로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도별 순이동을 보면 경기(5497명), 인천(1643명), 강원(1501명) 등 8개 시·도는 전입, 서울(-7713명) 등 9개 시도는 전출이 더 많았다. 세종시는 687명이 새로 들어왔다.

지난해 흑룡해를 맞아 늘었던 출생아는 올 들어 감소 추세다.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총 출생아는 3만6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3700명) 줄었다. /이지웅기자 lumlee@

꽃밭의 꽃 25일 '2013 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 이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일산 호수공원 행사장을 찾은 여성들이 노랗게 피어난 튤립을 관람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 바른 손글씨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제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청소년들의 개성과 감성을 뽐내는 '청소년 바른 손글씨 공모전'을 개최한다.

다음달 10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www.youthexpo.net)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청소년헌장'을 손글씨로 표현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대상 1명에게는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상금 30만원이, 그 외 수상자들에게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대체휴일안 처리 유보

당정간 여야간 이견… 정기국회서 재논의 하기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을 휴일로 정하는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 외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재계의 강력 반발에 이어 이날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안행위에 출석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지 않지만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모호한 발언으로 반대 의사를 보였다.

특히 유 장관은 "자영업자 80%, 가정주부 75%가 대체휴일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2011년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댔다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우리나라 발전 속도는 빛의 속도인데 2년이나 지난 자료를 들고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유승우 의원은 "모든 정책은 한번 정하면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대체휴일제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이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효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기업인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배동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강연하는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컨테이너 복합문화공간 탄생

시비 20억 투입 사상역에 'CATs' 건립…연면적 1021㎡에 지상3층

부산 최초로 컨테이너를 활용한 문화공간이 탄생했다.

부산시는 사상역 일원에 강동권 창조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를 상징하는 국제 규격의 화물수송용 컨테이너를 이용한 '컨테이너 아트터미널 사상인디스테이션'(이하 CATs·사진)을 건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조성된 CATs에는 신라대, 동서대, 인제대 등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그들만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집객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비 20억원이 투입돼 조성된 이 공간은 연면적 1021㎡ 규모에 총 27개의 컨테이너를 사용해 지상 3층, 2개 동 건물로 구성됐다.

소관동은 공연장, 전시실, 쇼케이스로, 도란동은 스튜디오, 다문화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향후 젊은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곳의 운영을 맡게 된 (재)부산문화재단에서는 인디 문화를 중심으로 한 비보이공연, 인디 페스티벌, 청년문화예술가 작품 전시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직장인 밴드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다문화 공간에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축제 및 아시아 문화이해지학교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공간은 시범 운영을 끝내고 7월 초 개관한다.

/김수희기자 ksh@metrobusan.co.kr

아시아 최초 자체번식 '위디 해룡' 일반에 공개

부산아쿠아리움은 25일 아시아 최초로 자체 번식한 새끼 '위디 해룡' 28마리를 지하 3층 해룡 수조에서 일반에 공개했다.

'바다의 용'이라 불리는 위디 해룡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 중이다.

부산아쿠아리움은 2011년 10월 호주 멜버른 아쿠아리움에서 인공 번식된 위디 해룡을 반입했다.

반입된 위디 해룡은 지난해 11월 말 암컷이 수컷의 꼬리에 100~200여 개의 알을 붙였고 지난 1월 초부터 부화되기 시작해 1.7~2cm 크기의 성체와 닮은 28마리의 새끼 위디 해룡이 태어났다.

모든 새끼 위디 해룡이 현재는 12cm 정도의 크기로 건강하게 자라 8마리의 성체와 함께 총 36마리의 위디 해룡이 지하 3층 해룡 수조에 전시됐다.

시민공원 조성현장 공개

부산시민공원 조성 현장이 2011년 8월 착공 이후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된다.

부산시는 내년에 세계적인 명품공원으로 태어날 부산시민공원을 시민들에게 미리 보여주기 위해 26일 부산시민공원 시민 방문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홍보영상 관람 ▲구 장교 및 사령관 관사 견학 ▲참여의 숲길, 자연의 숲길, 즐거움의 숲길 방문 ▲구 장교클럽(역사관) 및 방문자 센터 등을 견학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법원 체험 법의 날인 25일 부산지방법원 모의법정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법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법원 청사를 견학하고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개명 신청서를 작성하는 체험도 했다. /뉴시스

지구사랑 함께 그려봐요

초등생 대상 어린이 사생대회 다음달 19일 개최

글로벌 생활용품 타파웨어 브랜즈가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다음달 19일 통도 환타지아에서 '제3회 지구사랑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생대회는 부산·경남·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행사 주제는 '지구 환경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참가 어린이들은 스스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보호 방법이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날 제출된 모든 작품들은 사단법인 전국교원미술협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40여 점의 작품이 시상작으로 선정되며 해당 어린이들에게는 각각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타파웨어 브랜즈 홈페이지(www.tupperware.co.kr)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 어린이에게는 타파웨어의 에코 물통 주니어와 그림 도구가 무료로 제공되며 통도 환타지아 빅 3 입장권(4인 기준) 등이 참가 선물로 증정된다.

문의: 02)3448-1813

부전역 등 도시철도 7곳 스크린도어 추가로 설치

부산교통공사는 1호선 부전 시청·부산대·장전역과 2호선 남천·덕천·화명역 등 7개 역에 PSD(스크린도어)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추가로 설치되는 7개 역사는 PSD 미설치 54개 역 중 승하차 인원, 승객 유동량, 승강장 환경, 기관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했다.

설치는 다음달 착공해 내년 4월경에 완공될 예정이다.

PSD 설치 비용은 부산시와 협의해 금년도에 반영한 공사 자체 예산 95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부산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4개 노선 108개 역 중 53개 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사 중인 1호선 교대역과 설치 예정인 7개 역을 제외하면 PSD 미설치역은 1호선 19개 역, 2호선 28개 역 등 총 47개 역으로 줄어든다.

내일 장애인 한마음 걷기대회

사상구는 27일 오전 9시30분 삼락생태공원 문화마당 일원에서 '우리 다함께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제1회 사상구 장애인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상구장애인체육회와 부산장애인체육회, 부산낙동로타리클럽이 공동 주관하는 걷기대회는 삼락생태공원 문화마당 광장에서 출발해 연꽃단지를 한 바퀴 돌아오는 약 2.5km 코스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 걷기대회와 연계해 건강검진 부스와 평생학습체험부스, 페이스페인팅, 훌라후프 돌리기, 투호놀이, 작은 음악회 등이 마련된다.

앞서 사상구는 지난해 10월 부산시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한 바 있다.

롯데호텔부산 '비즈니스맨 성공 패키지' 판매

롯데호텔부산이 출장 업무로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맨을 위한 성공 패키지'를 구성,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비즈니스로 부산을 방문하는 이들의 니즈를 고민하던 중 기획됐다고 호텔 측은 설명했다.

출장지에서의 행동 패턴을 중심으로 만든 이번 패키지(12월 31일까지 판매)는 스탠다드 객실을 기본으로 출장 시 챙기기 힘든 아침 식사와 건강과 휴식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 및 사우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회의실, PC, 프린터 및 스캐너 등)를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 업무에서 돌아온 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이시히 병맥주 2병(룸서비스),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 센딩이 제공된다.

가격은 주중(일~목요일) 기준으로 20만원, 세금 및 봉사료 별도다. 주말과 피크 시즌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또 2박 투숙 시에는 2만원 할인, 3박에는 3만원 할인 등 장기 출장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도 제공되며, 롯데호텔부산 체험 프로그램 LTE팀과 함께하는 부산 관광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51)810-11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편집인	남윤호
사장·편집인	김종락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 겸 대표	김송준
서울광고문의	02)721-93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2

2002년 5월 31일 창간 2002.5.3 등록번호 문화가 00071

아동복도 아웃도어 열풍

패밀리룩 선호에 수요 증가 분석… 업계 속속 신제품 출시

유통가에 불고 있는 아웃도어 열풍이 아동 의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5일 부산지역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최근 등여 성인 의류를 위급력은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패션과 기능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치수만 축소한 아동복 라인 제품을 속속 출시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노스페이스 매장의 경우 올 1분기 매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다.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인 블랙야크, K2, 아이더, 네파 등도 아동복 라인을 새롭게 선보였다.

아웃도어가 아닌 전문 아동복 브랜드들도 이 같은 아웃도어 상품 수요를 겨냥해 관련 제품들을 속속 출시했다.

빈폴키즈, 휠라키즈, MLB키즈, 닥스키즈 등 부모 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패밀리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아웃도어 제품을 내놓으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부산지역 롯데백화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흘간 아웃도어와 캠핑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키즈 페스티벌' 아동 선물 상품전을 진행한다.

행사는 아동복 12개 브랜드가 참여해 인기 품목인 아웃도어 바람막이 재킷, 트레이닝복 세트, 바지, 티셔츠 등 봄, 여름 의류 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이경길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홍보팀장은 "이 같은 아동 아웃도어 열풍은 자신이 입은 옷과 같은 옷을 입히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이 팽배하면서 '패밀리룩'의 한 패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4층에 위치한 노스페이스 매장에서 선보이는 아동 전용 아웃도어 제품을 엄마와 아이가 함께 살펴보고 있다.

자외선 막고 멋도 내고 25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 누블릭드선 매장을 찾은 여성들이 자외선 차단기능과 함께 프레임 부분을 다양한 컬러와 두께로 차별화시킨 패션 선글라스를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경제인 되고픈 대학생 다 모여라

한은 내달 3일까지 참가자 모집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부산 경제 발전을 이끌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생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대학생 경제 교육 프로그램 '이코노믹스 챌린지 - 부산'을 개설하기로 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금융기관 취업 준비생 등 금융·경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대상은 부산지역 대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공은 무관하지만 상경계열 학과를 우대한다.

모집 인원은 40명 이내이며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지속적인 경제 교육을 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한국은행 부산본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다음달 3일까지 e메일(busan@bok.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학생에게는 다음달 10일까지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에어아시아 엑스 부산~쿠알라룸푸르 노선 취항

저비용 항공사 에어아시아 엑스가 오는 7월 15일부터 주 4회 부산-쿠알라룸푸르 노선의 운항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현재 서울-쿠알라룸푸르 노선을 매일 운항 중이며 부산 노선에서도 서울 노선과 같은 A330-300 기종을 투입해 프리미엄석 12석 포함 총 377개 좌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즈람 오스만라니 에어아시아 엑스 대표는 "부산 취항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에어아시아 엑스의 거시적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운 여행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간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노선을 이용할 여행자의 60% 이상이 부산이나 쿠알라룸푸르를 처음 방문하는 여행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아시아 엑스는 부산-쿠알라룸푸르 노선이 부산 및 주변지역 여행자들에게 동남아와 호주까지 잇는 에어아시아 그룹의 광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축구장 4개 크기 갑판 '트리플-E' 선박 온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MAERSK)의 트리플(triple)-E 선박이 올해 7월 15일 부산항에 입항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선박은 컨테이너 화물(약 6m짜리 기준)을 1만8000개까지 실을 수 있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길이 400m, 너비 59m, 무게 16만5000t으로 갑판 면적만 축구장 4개를 합친 정도다.

BPA는 최근 부산항 신항 입구 중앙에 있는 토도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통항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초대형 선박 안전운항 시뮬레이터'를 제작,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섯째 낳은 30대부부 화제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부산에서 최근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30대 부부가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공형우(34·원 폭), 최상영(34)씨 부부.

최씨는 21일 오전 6시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다섯째 막내딸을 낳았다. 외동으로 자란 공씨와 남동생 1명만 있는 최씨 부부는 처음에는 자녀 3명을 낳기로 뜻을 모았다.

부부는 계획대로 3명의 자녀를 낳은 뒤 넷째와 다섯째까지 가지게 됐다. 초등학교 2학년인 첫째 아들부터 6세와 4세 딸, 그리고 세 살배기 넷째 아들에 이어 막내딸까지 도 날이 집안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시끌벅적하지만 쑥쑥 커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부부는 말했다.

5월 2일부터 기장멸치축제

부산 기장군은 5월 2~5일 기장군 대변항 일대에서 '신선함 그리고 맛과 멋으로 통하는 기장멸치'를 주제로 제17회 기장멸치축제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축제 기간에 멸치회 무료 시식, 어선 해상 퍼레이드, 수산물 깜짝 경매, 맨손 활어 잡기, 소방정 분수쇼, 해상 불꽃쇼,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metro France

'다이어트 포크' 곧 출시

식사를 빨리할수록 살이 찌게 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 이런 '위험'을 진동으로 알려주는 '다이어트 포크'가 전 세계 출시를 앞두고 있다. 포크는 프랑스 엔지니어 자크 르펜이 개발했다. 사용자가 음식을 빨리 먹을 경우 진동으로 경고하는 것은 물론 식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계산해 저장한다. 포크는 조만간 미국과 유럽에서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100유로(약 14만 7000원)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클로틸드 실드로 기자·정리=조선미기자

멕시코 시골학교 '10페소의 기적'

metro Mexico

교사들 자체급식 도입 영양실조 학생들 완치

6개월 만에 영양실조에 걸린 학생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준 멕시코 시골 학교의 '학교 냄비 프로젝트'가 화제다.

게레로 지방 틸라파시의 시골 마을에 있는 이 학교는 스무 명 남짓한 학생들이 다니는 분교다.

그동안 이곳 학생들은 하루에 10~15페소(약 900~1400원)를 쓰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사서 끼니를 해결했다. 그러나 3년 전 이들의 영양 상태가 매우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판단, 교사들이 '학교 냄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학교 냄비 프로젝트는 학생 한 명에게 하루에 10페소씩 걷어 자체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사들은 걷은 돈으로 마을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달걀·콩·나물 등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구입했고, 학생들은 당번을 정해서 요리를 했다.

당시 학생들은 비타민·칼슘·철분·섬유질 부족으로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몰라볼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다.

더불어 학교 측은 교내에 정수기와 난로를 설치하는 등 시설도 정비했다.

학교 냄비 프로젝트로 영양 상태가 호전되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됐다.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한 환경 연구단체 관계자는 "학교 냄비 프로젝트는 지역 공동체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브리엘라 쿠가노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운동화 주인은 어디에 24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시 코플리 광장에 마련된 보스턴마라톤 희생자 공식 추모소에 운동화들이 놓여있다. /AP 연합뉴스

女 교도관들 임신시키고… 마리화나 밀반입 장사까지…

구치소 접수한 조폭 두목

미국 폭력조직 두목이 여성 교도관들과 성관계를 맺고, 물건을 밀반입하는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구치소를 휘젓고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24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볼티모어 구치소에 살인미수 혐의로 수감된 갱단 '블랙 게릴라 패밀리(BGF)'의 두목 태번 화이트는 여성 교도관 4명과 성관계를 하고 임신까지 시켰다.

평소 화이트는 볼티모어 구치소 내 전화기를 통해 외부와 통화하면서 "여긴 내가 접수했어. 여기서 모든 결정은 내가 해"라고 비 것이 자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교도관 중 2명은 화이트의 이름을 각각 목과 손목에 문신으로 새겨넣기도 했다. 또 화이트는 여성 교도관 3명에게 자동차와 다이아반지 등 값비싼 물품을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연방검사 로드 로젠스테인은 여성 교도관 13명과 갱단 조직원 등 25명을 공갈과 돈세탁, 마약 밀반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교도관들은 BGF 조직원들이 휴대전화와 마리화나, 의약품과 담배 등을 감옥으로 들여와 수감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도록 도운 혐의다. 교도관들은 속옷이나 신발 속에 물건을 숨겨 들여오는 방법으로 출입 시 소지품 검사에서 빠져나갔다.

기소장에 따르면 두목 화이트는 구치소 안 밀수품 거래로 한 달에 1만6000달러(약 1770만원)를 벌어들였다.

BGF는 196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결성돼 마약 거래와 강도 등을 저지르며 미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간 폭력조직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PELLY와 떠나는 봄 여행!
CASUAL SALE
4.15(월) ▶ 4.30(화)
50%~
일부 품목 제외

market index <25일>

지표	값	변동
코스피	1951.60	(+16.26)
코스닥	558.40	(-4.41)
금리	2.56%	(-0.05)
환율	1111.00	(-6.00)

제2금융권 연대보증도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 연대보증은 대환대출을 활용해 구제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연대보증 폐지에서 대부업은 제외돼 저소득자의 대부업 대출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이미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대출 중개를 빙자해 대부업 대출로 연결해 주고 연대보증을 받는 대출중개업자의 활개를 치고 있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대부업을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된다.

현재 금융권의 연대보증자는 196만여명, 연대보증액은 75조여원에 달한다. 1인당 3800만원씩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

이번 금융위의 조치에 대부업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대부업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출중개업자들은 오히려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대부업은 물론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과도 계약을 맺고 문의해 오는 이들에게 실제로는 대부업 대출을 알선하고 있다.

/김지설기자 lazyhand@

팬택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 공식 출시

베가 아이언이 26일 공식 출시된다.

팬택은 세계 최초 '엔드리스 메탈'을 구현한 LTE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을 이날 본격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출고가는 같은 날 시판되는 갤럭시S4보다 7만여원 낮은 82만9400원이다.

베가 아이언은 삼성과 애플이 적용하지 못한 전면 금속 마무리를 최고 강점으로 내세운다. 금속 안테나 기술로 통화품질은 물론 견고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이다. 5인치 액정과 2mm대 최소 베젤로 세계 최고 풀스크린 화면 비율도 자랑한다.

한편 팬택은 베가 아이언 출시를 기념해 제품 구입자에게 고급 풀립커버를 한정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장윤희기자 unique@

바이오주도 '건강진단'이 필요해

최근 알앤엘바이오·셀트리온 사태에 투자자 패닉
전문가들 "가시적 성과·실적 확인된 기업 선택을"

"가방으로 스타일 살려요" 투미의 디퓨전 브랜드인 틱북바이투미가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국내 공식 론칭을 선언하고 비즈니스, 여행, 데이백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꿈의 바이오주' 투자자들은 최근 알앤엘바이오와 셀트리온 사태에 업종 전반의 주가가 출렁거리자 패닉 상태에 빠졌다.

증시 전문가들은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라고 조언하면서도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실적'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잘 선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 매매 사흘째에 돌입한 알앤엘바이오의 주가는 18.06% 빠졌다.

라정찬 회장의 공개 매수 발언에 전날 35% 가까이 상승했으나 하루만에 다시 내렸다. 정리 매매 기간에는 가격 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직전 이틀간 회복세를 보이던 주가가 다시 소폭 하락했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앞서 나흘간(17~22일) 급락으로 시총 2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가 겨우 3조원대로 회복된 상태다.

하지만 바이오 투자자들은 과거 '황우석 사태' 당시의 폭락 사태까지 떠올리며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못한다.

그동안 딱히 검증된 연구성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약 기대감에 무리하게 주가가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현 바이오 시장은 과거와 달리 실제적인 성장성과 체질이 달라졌다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바이오 개별 종목을 보는 눈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손위창 현대증권 연구원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기업, 특히 해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향후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바이오 업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한양행·녹십자·한미약품·씨젠·LG생명과학·차바이오앤디오스텍 등을 시총 1000억원 지난해 매출액 100억원 및 영업이익 10억원 이상 상장사로서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로 꼽았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제작비 5만원 영화의 쾌거

'제3회 올레 국제스마트폰영화제' 만장일치 대상 받은 김찬년 감독

단돈 5만원으로 제작한 영화로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주인공은 지난 20일 개막한 '제3회 올레 국제스마트폰영화제'(KT 후원)에서 화제를 모은 김찬년(25) 감독.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를 휴학 중인 김 감독의 작품 '24개월 후'는 총 730편 출품작 중에서 예심을 통과한 25개 본선 진출작 가운데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 작품은 24개월 약정 피처폰을 사용하는 남자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스마트폰이 지배한 세상 속에서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9분 59초의 짧은 시간 동안 재기 발랄하게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상작에 뽑혔다.

김 감독은 "5만원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완성한 이 영화가 영화인이 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4개월 후'를 비롯한 경쟁부문 수상작들은 영화제 홈페이지(www.ollehfilmfestival.com)와 올레닷컴(www.olleh.com) 등에서 다음달 19일까지 볼 수 있다.

한편 KT는 스마트폰 영화 제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영상아카데미(ollehstudio.kt.com)를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 영화제에서 배출한 스타 감독들이 스마트폰 영상의 기초 개념부터 실습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영화 마니아는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참가 비용은 무료다.

/이국현기자 kmkim@metroseoul.co.kr

제3회 올레 국제스마트폰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찬년(왼쪽) 감독과 심사위원장 봉준호 감독. /KT 제공

"게임도 '스토리+텔링' 중요"

넥슨스튜디오 박범진 실장 NDC강연 내용 눈길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넥슨스튜디오 박범진(사진) 실장이 '게임의 스토리란 과연 포르노의 줄거리에 불과한가'란 파격적인 주제의 강연에서 '스토리텔링'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25일 열린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NDC) 마지막 날 강연이 그 무대였다. 넥슨이 2007년부터 진행하는 NDC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게임 개발자 행사다.

박 실장은 "똑같은 야한 영화라도 스토리가 좋으면 흥행은 물론 명작의 반열에 오른다"면서 "이는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유명 게임개발자 존 카맥의 '게임 스토리는 포르노와 같다. 있기는 하지만 쓸모가 없다'라는 말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게임에서 스토리와 텔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플레이스테이션의 최대 흥행작인 '이코'는 한 소년이 성에 갇힌 소녀를 구하기 위해 손을 잡아 탈출한다는 스토리를 지닌다.

이 게임은 사용자가 손잡기 버튼을 누르는 내내 주인공의 심장박동이 패드로 전달된다는 '텔링'을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정윤희기자 unique@

카페베네 무료커피 4만잔 쐈다 25일 서울 청담동 카페베네 매장 앞에 공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카페베네는 창립 5주년을 기념해 이날 오후 5시부터 전국 800개 매장에서 선착순 50잔씩, 총 4만 잔의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행사를 벌였다.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미디엄 로스팅 커피도 선보였다. /박재범기자

추억의 70 80 상품 롯데백화점 관악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여직원들이 교련복을 입고 도시락과 쫀드기 등 1970~1980년대 추억의 먹거리를 살펴보고 있다. 엿치기와 뽑기 등 추억의 놀이도 선보이는 이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우체국도 알뜰폰 판다

우체국에서도 알뜰폰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에서 저렴한 이동통신을 제공하는 알뜰폰(MVNO)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탁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25일 "유통망이 부족한 알뜰폰 업체들이 전국 3600여개의 우체국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가입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최근 편의점들이 알뜰폰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본은 수탁 판매로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알뜰폰은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어 상생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zan@

뉴스 & 뉴스

스마트폰 꾸미는데 1인당 연 4만2000원 소비

●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액세서리를 구입하는 데 한 해 평균 4만2000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스마트폰 이용자 13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케이스의 평균 구매 가격은 2만2048원으로 나타났다. 아이폰 이용자(2만5250원)가 안드로이드 단말기 이용자(2만403원)에 비해 약 4800원 더 비싼 케이스를 구매했다. 또 스마트폰 단말기를 구매해 교체하기까지 케이스는 평균 2.4회, 액정보호필름은 평균 2.5회 구매했다. /이국현기자

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3명 만기시 보험사 바꿔

●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3명은 만기 시 보험사를 바꿨다.

자동차보험이 생활필수품화돼 가격 민감도가 높고 보험사에 대한 로열티는 약해진 것. 25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재가입률이 69.0%라고 밝혔다. 보험료가 높은 조건의 가입자일수록, 대도시 가입자일수록 재가입률이 낮았다. /김서희기자

냉장고계 '괴물' 출현

6도어 디자인 첫 구현한 위니아만도 '프라우드' 920ℓ 세계 최대 용량에 냉장·냉동 기능 전환도 삼성·LG 아성에 도전장

모두 6개의 문, 세계 최대 용량(915~920ℓ), 냉장·냉동 기능 전환…

위니아만도가 만든 첫 프리미엄 냉장고가 공개됐다. 위니아만도는 25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6도어 냉장고 '프라우드(PRAUD)'를 선보이며 삼성·LG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냉장고 시장에 뛰어들었다.

'위니아 에어컨'과 '딤채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위니아만도는 지금까지 에어워셔, 제습기, 이온정수기 등을 출시해왔으며 대용량 냉장고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발 주자인 만큼 위니아만도는 기존에 없던 스타일과 용량으로 승부수를 걸었다. 딤채를 만들며 쌓아온 냉각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저장실을 필요에 따라 냉장·냉동·특냉·생동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상단 우측에 있는 냉장실은 별도로 2개의 '듀얼 에코 스페이스' 문이 달렸는데 자주 꺼내는 반찬이나 음료수, 화장품 등을 보관하도록 했다.

저장소는 상단의 냉장실 2칸과 1칸의 프레시 D존, 하단의 냉동실 2칸 등 총 5개가 있는데 모두 독립된 전용 냉각기를 장착했다. 특히 프레시 D존은 김치냉장고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 김치,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기에 적당하다. 용량은 915ℓ, 920ℓ가 있으며 출시 가격은 350만~550만원이다.

시진작가 김중만씨가 냉장고 디자인에 참여했으며 라임 메탈 소재를 전면에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노렸다. 배우 다니엘 헤니가 광고 모델로 활동한다.

위니아만도 변완석 대표는 "올해 프라우드 5만 대를 판매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매출 1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 해외 매출 비중 20%를 달성하겠다"며 "친건강, 친환경 콘셉트의 가전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문가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정흥순기자 hcjeon@metroseoul.co.kr

위니아만도 변완석(왼쪽) 대표이사와 배우 다니엘 헤니가 25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프리미엄 냉장고 '프라우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유럽서 온 무연담배 '스누스' 간접흡연 눈치 '후~' 날려요

29일부터 국내서도 판매

연기 걱정 없는 무연담배 '스누스'가 국내에 상륙해 눈길을 끌고 있다.

스누스맨(www.snusman.co.kr)은 덴마크 'V2 타바코'사와 독점 계약을 통해 오프로드·펜텀 썬더 등으로 구성된 스누스를 29일 국내에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누스는 200년 전 북유럽에서 시작된 일종의 씹는 담배로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면서 일산화탄소나 타르를 배출하는 연기가 없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담배'로 불린다.

스누스의 사용 방법은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끼워 넣고 30분~1시간 정도 있다가 뱉어내면 끝이다. 씹거나 삼킬 필요가 전혀 없다.

스누스를 통해 전달된 니코틴은 30분~1시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흡연 욕구 또한 충분히 충족시킨다. 이런 이유로 스누스는 이미 유럽 전역에 이어 미국 시장에 진출, 매년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스누스는 전국 판매처와 전문매장 1호점, 2호점인 부천점과 인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미국형기자

면세·할인·쿠폰…3번 아끼는 쇼핑천국

롯데면세점 세일 '손짓'

6월 13일까지 전 지점에서 패션70%·화장품30% 할인 예비부부엔 VIP카드 발급

롯데면세점이 봄 여행철을 맞아 6월 13일까지 전 지점에서 '더 롯데 세일'을 진행한다. 이 기간 가방·의류 등은 최대 70%, 향수·화장품은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푸짐한 경품도 나눠준다.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VIP 카드를 바로 발급해준다.

◆가방·의류 최대 70% 할인

본점·잠실점에서는 아르마니를 최대 70%, 본점·잠실점·코엑스점·부산점·인천공항점에서는 듀스퍼스를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인천공항점에서는 향수·화장품을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선보이는 단독 행사를 펼친다. 제라가포·언나수아·오휘·숨·후·빌리프 등로 '컬린클라인·입생로랑·보스 등 지난 한 해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를 중심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포공항점은 정관장·건보·롯데홀스웰 등 건강식품을 5개 이상 구매할 경우 10%, 3개 이상 구매 시 5% 할인한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이 향수·화장품을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6월 13일까지 진행한다

◆롯데면세점 단독 화장품 기획전

단골 고객을 위해 화장품 전용 세트를 제작하고 추가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화장품 기획전도 마련했다.

후의 기앤진 크림 50㎖와 비첩 자생 에센스 20㎖를 묶어 128달러에 선보이고, 기앤진 스킨·로션·아이크림을 선물로 준다. 숨은 인기 상품인 시크릿 프로그래밍 에센스 80㎖ 제품에 40㎖ 제품을 함께 묶어 75달러에 판매하고, 추가로 타임에너지 스킨·로션·크림·에센스 쿠펀정품을 증정한다.

◆예비부부에게 VIP 카드 발급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결혼 예정일 2개월 전부터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롯데면세점 VIP 카드를 발급해준다. 청첩장·여권·항공권을 소지하고 롯데면세점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본점·잠실점·코엑스점·부산점·제주점을 방문하는 커플에겐 선불카드 1만원을 축의금으로 지급한다.

인터넷 면세점에서도 행사를 벌인다. 로그인을 하면 적립금 1만5000원을 지급하고, 구매 금액대별로 10%까지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

◆1달러로 제주 휴양여행 기회

이벤트도 풍성하다. 전 점에서 화장품을 1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 10명을 추첨해 제주도 고급 휴양지 아트빌라스의 무료 2박 숙박권과 왕복권을 경품으로 준다. 잠실점·코엑스점은 롯데카드로 12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오페라 '리골레토' 티켓을 선착순으로 1인 2매 증정한다.

본점·잠실점·코엑스점에서는 신한카드로 500달러 이상 결제하면 금액별로 스마트 선불카드를 증정한다. 500달러 이상은 7만원, 1000달러 이상은 13만원, 2000달러 이상은 25만원이다. /박지원기자

오션월드 내일 야외개장

사전예매 40% 할인 혜택

비발디파크 오션월드가 27일 국내 워터파크 중 올해 처음으로 야외 개장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시에 수도권 무료 셔틀버스·기간 한정 온라인 특가 프로모션·시즌권 판매 등을 진행하고 여름에 앞서 본격적인 물놀이 고객 유치에 나선다.

최대 4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온라인 특가 프로모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달 31일까지 홈페이지(www.vivaldipark.com)에서 입장권을 사전 예매하면 된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다음달 4~5일에는 유료 입장 성인 2인과 동반한 미취학 아동에게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조건의 초등학생은 1만원에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각 1일당 선착순 1000명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며 일행당 최대 3인까지 가능하다. 단체 고객은 제외된다.

내년 4월 13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시즌권은 홈페이지에서 7월 31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문의 1588-4888 /권보람기자

동물실험반대 서명하면 더바디샵 20% 할인권 증정 자연주의 코스메틱 브랜드 더바디샵이 24일 강남점에서 배우 송승아·가운데와 함께 동물실험 반대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다. 28일까지 전국 더바디샵 매장 또는 홈페이지(www.thebodyshop.co.kr)에서 서명에 참여하면 2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더바디샵은 업계 최초로 화장품에 대한 인도적 기준 에 가입했으며 비동물실험 인증 마크인 '리핑 버니'를 획득했다. /권보람기자

백지영과 함께 '냄새나는 콘서트2' 즐겨요

英 수제화장품브랜드 러쉬 내일 오후 7시 잠실 체육관

LUSH

HAVE A FUN DAY!

영국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가 27일 오후 7시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냄새나는 콘서트2'를 진행한다.

'해브 어 펀 데이' 콘셉트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이이슬 그룹 인피니트를 비롯해 가수 백지영, 울랄라세션, 에일리, 딕펑스 등 실력파 뮤지션이 대거 출연한다.

무공해 동심 놀이터 '펀 파크', 를 비롯해 영국에서 온 러쉬 셰프와 함께 러쉬 제품을 만들어보는 '신선한 키친', 훈남 테라피스트들과 함께하는 '신제품 컴포터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러쉬코리아 담당자는 "브랜드 색깔만큼이나 특별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콘서트를 마음껏 즐기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보람기자

'한돈 다이어트' 참가자 모집

우리 돼지고기로 다이어트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제피트니스전문가협회와 함께 '한돈 다이어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테스터를 모집한다.

고단백 한돈 불맹 부위 식단을 섭취하면서 정기적인 운동을 병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이어트 효과를 과학적으로 따져보게 된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체지방률 30% 이상의 20대 여성이 대상이다. 오는 5월 3일 오후 5시까지 한돈닷컴(www.han-don.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30명은 5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 주 3회, 1회당 50분 동안 전문가로부터 맞춤형 운동 지도를 받게 된다. 식단 프로그램과 한돈 안심 부위, 피트니스 이용권, 건강검진, 건강 관련 체력 측정 등도 지원받는다. /정효순기자

보석보다 '에메랄드 그린'

올봄에 새싹이 움트듯 세상이 푸르게 물들었다. 일상에 활용하기는 다소 과감한 색상으로 여겨졌던 그린색이 패션·주얼리를 시작으로 IT 소품에까지 퍼져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봄과 함께 시작된 '초록빛 향기'는 올해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올 트렌드 컬러 '초록색' 향연
흔하면서도 화려한 '힐링컬러'
무채색과 코디하면 부담 적어

글로벌 색채기업 팬톤 컬러연구소가 지난해 말 '올해의 색'으로 에메랄드 그린을 선정했을 때만 해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았다. 익숙하지만 튀는 빛깔이라 생활 속에 녹아들기 힘들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팬톤 컬러연구소 측은 "균형미와 안정감을 지닌 에메랄드빛이 패션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시장까지 선도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올봄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발 빠르게 반응한 분야는 패션이다. 루이비통은 2013 봄·여름 컬렉션에서 그린 컬러 격자무늬 원피스와 핸드백으로 눈길을 사로잡았고, 멀버리는 2013 가을·겨울 컬렉션에 에메랄드 보석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상의를 선보여 초록빛 흐름을 주도했다.

모노·브라운 컬러가 주를 이루던 아이메이크업에도 그린이 등장했다. 메이크업 브랜드 헛지핏은 최근 신제품 '컬링 스윙 마스카라'의 대표 색을 에메랄드 그린으로 선정하고 속눈썹을 초록빛으로 물들인 서인영의 메이크업 화보(사진 위)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에메랄드 그린에서 뻗어나온 시원스러운 민트 빛깔도 주목받고 있다.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뮌그랄은 민트색 장식이 돋보이는 '고운의 애티튜드' 라인을 출시하고 초록빛 시장에 뛰어들었다. 뮌그랄 관계자는 "민트 색상 제품이 전체 컬러 판매량의 45%를 차지하는 등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그린은 봄의 싱그러움과 산뜻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채도가 높고 화려해 이목을 끄는 색상이기도 하다. 그린 아이템에 처음 도전한다면 회색 등 무채색 계열의 색상을 바탕으로 안정감을 주거나, 골드·블랙 등 무거운 느낌의 색상과 조합해 고급스럽게 연출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흰색과 에메랄드 그린을 매치하면 발랄하고 신선한 느낌이 강조된다.

한국 케이케 색채연구소는 최근 유행 중인 녹색 열풍에 대해 "자연에서 온 색상인 만큼 사람들의 지친 감성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밝은 미래를 연상시키는 컬러"라고 평가하면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낯설고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초록 계열 색상으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무채색이 주를 이루던 패션잡화도 올해만큼은 그린이 단연 인기다. 빈 위부터 TNGT ACC 그린 에스닉 패턴 토트겸 숄더백, 카파 백팩 '에메랄드 그린', 스코노 노하 체커 컨트

지난 2월 18일 영국 런던 켄싱턴공원에서 열린 버버리 프로섬 2013 가을·겨울 패션쇼에 짙은 초록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등장한 배우 김혜선. /로이터 연합뉴스

불황속 '달콤한 캔디컬러' 잘 팔리네

불황에는 화려한 컬러가 본색을 드러낸다.

올봄 최악의 경제 위기로 침체된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알록달록한 캔디 컬러가 뷰티·패션뿐 아니라 주방·가전 등 라이프 전 분야에서 색을 밝히고 있다.

색채 전문가들은 화사한 색상이나 이미지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불황에는 적은 비용으로 개성을 나타내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서 "이처럼 색깔 아이템에 지갑을 여는 '컬러 소비'가 가속화되면서 강렬한 원색 슬레 산업 전반에 트렌드 컬러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핑크 립스틱·컬러 팬츠 열풍

지난겨울부터 여성들의 입술은 상큼한 핫핑크로 물들었다. 맥·슈에무라 등 주요 뷰티 브랜드들은 '캔디 얌얌' '강남 핑크' 등 다양한 톤의 분홍 립스틱을 잇따라 선보이며 완판 행렬을 이어가는 중이다.

블랙·블루 일색이던 바지 역시 무지개 빛깔을 입었다. 백화점 캐주얼 매장에서는 눈에 확 띄는 형광색의 팬츠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SPA 브랜드 에잇세컨즈 마케팅팀 이신애 과장은 "이번 시즌에는 은은한 파스텔톤부터 강렬한 원색까지 화려한 컬러 팬츠가 대유행"이라며 "특히 그동안 무채색 위주였던 남성 바지에도 튀는 컬러가 대거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주방·식탁에도 컬러를 '원더풀'

단순 생필품으로 여겨졌던 주방용품 역시 컬러풀한 아이템이 대세다. PN풍년의 관계자는 "화려한 주방용품은 부엌을 화사하게 꾸미는 인테리어 기능은 물론 뇌를 자극해 식욕을 돋운다"며 "이제 색은 주방용품의 디자인에 멋을 더하는 것뿐 아니라 음식의 맛과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형형색색 냄비와 그릇이 인기를 끌자 이미프는 최근 컬러 주방용품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렸다. 실제로 오렌지·블루 라인 등 튀는 색상의 냄비일수록 매출이 잘 나온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박지원기자 ljw@

'효 디너쇼 성찬' 차려졌네

어버이날맞이 이미자·심수봉·주현미·장윤정 '4인4색' 무대 마련

이미자 심수봉 주현미 장윤정

심연가요 '4대 여왕'들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뜨거운 효심 잡기 대전을 벌이고 있다.

디너쇼 티켓이 어버이날 효도 선물 1순위로 꼽히는 가운데 이미자·심수봉·주현미·장윤정 등 각 세대를 대표하는 베테랑 가수들의 공연이 예매율 순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대선배인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는 다음달 7~8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어버이날 효 디너쇼'를 개최한다. '동백아가씨' '기러기 아빠' '섬마을 선생님' 등 주옥같은 히트곡들로 70년 인생사와 부모 세대의 인생을 함께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미자 디너쇼는 관객층이 대부분 60~70대임에도 구매자 연령은 30~40대가 79%를 차지할 만큼 부모를 위한 효도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2NE1의 산다라박이 모친과 이미자 디너쇼를 관람하고 SNS에 글을 남겨 화제를 모았다.

이번 공연에는 김동건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일반적인 디너쇼 식사인 스테이크 대신 건강 트렌드를 감안해 떡갈비 코스가 제공된다.

심수봉은 8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심수봉 특별 디너쇼'를 마련한다. 6성급 호텔인 콘래드에서 처음 열리는 디너쇼다. 이 호텔의 총주방장인 쉬렌 피어슨이 첫 번째 만찬을 직접 준비한다.

심수봉은 우아한 분위기에 맞게 심포니 전속 오케스트라와 손잡는다. 전곡을 오케스트라에 맞춰 편곡해 차별화된 구성을 시도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때 그 사람' '사랑밖엔 난 몰라' 등을 선사한다. 또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피아노 연주도 들려준다.

2월 세종문화회관 단독 콘서트를 매진시켰던 주현미는 8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현미의 특별한 디너쇼' 무대에 오른다. 데뷔 30년을 넘긴 지금도 변함없이 청아한 목소리와 화사한 미소를 지닌 그는 화려한 무대 구성과 박진감 있는 연출로 특유의 팔색조 매력을 전한다.

장윤정은 8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어버이날 효 디너쇼'를 연다. 결혼 발표 후 첫 무대로,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장윤정은 "부모님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다. 단순한 디너쇼가 아닌 효도잔치가 될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벤트로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o@

w.nd8585@naver.com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오페라단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탄생 200주년 베르디 걸작부터 창작까지

오페라 페스티벌 열린다

제4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이 다음달 4일부터 6월 9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

국립오페라단과 4개 민간 오페라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이탈리아 '가극의 왕'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맞아 베르디 작품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선오페라단과 서울오페라앙상블, 노블아트오페라단이 각각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5월 10~12일), '운명의 힘'(5월 17~19일), '리골레토'(5월 24~26일)를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린다.

고려오페라단은 창작 오페라 '손양원'(5월 31일~6월 2일)을, 국립오페라단은 '처용설화'를 재해석한 '처용'(6월 8~9일)을 마지막 무대로 선보인다.

페스티벌 기간 중 매주 토요일에는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에서 무료 공연도 연다. 오페라 하이라이트를 모은 갈라 공연부터 오페라 해설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마련된다.

지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koreaoperafestival.com)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580-1300

/김은경기자

4대 사회보험료 납부!
자동이체 신청으로 편리하게!

자동이체 신청하면 경품이 팡팡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자동이체로
쉽고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 멋진 선물까지 드립니다.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 신청 경품 행사

대상

- 2013년 4월 11일 ~ 2013년 7월 10일 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한 세대 또는 사업장
  *카드자동이체 제외

자동이체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 유선 신청 ☎ 1577-1000
- 인터넷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http://si4n.nhis.or.kr) 링크
  - 지로 홈페이지 (http://www.giro.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행사 기간

2013년 4월 11일 부터 2013년 7월 10일 까지

경품안내 *제세공과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당첨 안내

- 당첨자 발표 : 2013년 8월 6일(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및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http://si4n.nhis.or.kr) 홈페이지에 팝업게시 안내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4 What are these?

사물에 대해 말하기(복수)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샘플입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Is it time to begin the conference?
B Yes, it is. 여기 당신의 책들이 있어요.
A These books aren't mine.
B Then 이것들은 누구의 책들이죠?
A 이것들은 제 것이고, 저것들이 당신 거예요.
B Yes. That's right.

정답 Here are your books. / whose books are these? / These are mine, and these are yours.

생생영어팁

▶ They aren't mine. VS. They're not mine.

그것들은 제 것이 아니에요. vs. 그것들은 제 것이 진짜 아니라니까요.

위의 두 문장은 모두 '그것들은 ~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ren't는 be동사 are와 not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런데 They와 are를 합쳐 They're로 줄이고, 뒤에 not을 따로 붙여 They're not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개는 큰 차이 없이 쓰이지만 영어에서 단어를 따로 떼어 말하는 것은 그만큼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They aren't라고 할 때보다 They're not이라고 할 때 not을 더 강조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에서 They're not이라고 말하는 거죠.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 1000

01 This mobile phone is an updated version of the ______ model.
(A) origin (B) origins
(C) original (D) originally

02 Sleeping-car passengers will be provided ______ the bedding they need for the journey.
(A) with (B) for
(C) to (D) of

01. 이 휴대전화는 원래 모델의 업데이트 버전이다.
해설 명사 model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이므로 형용사인 (C) original(원래의)을 쓴다.
어휘 origin 名 기원, 근원 originally 副 원래
정답 (C) original

02. 침대칸 승객들에게는 여행에 필요한 침구가 제공될 것이다.
해설 provide A with B의 형태로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데, 이 문장은 수동태가 되면서 A 자리에 있어야 할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 Sleeping-car passengers로 문장 맨 앞에 나가 있는 상태이므로 전치사 (A) with를 써야 한다.
어휘 sleeping-car 名 (기차의) 침대칸 bedding 名 침구 journey 名 여행, 여정
정답 (A) with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질문 유형 파악하기

■ 확인정도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

Q I was told that it will finish at 5 p.m. Is this right?
[illegible]
A No, it isn't. It will finish at 5:30 p.m.

Q I heard that we will have lunch somewhere outside, right?
A No, actually. We will have lunch in the main cafeteria.
아뇨.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후 5시 30분에 끝납니다.

■ 잘는 정보를 묻는 경우

Q I was told that the CEO will give an opening speech, right?
CEO가 개회사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 Yes. At 9 a.m., Jacob Gray, the chairperson, will give an opening speech.
[illegible]

암보험, 사망보험
이제 따로 가입 마시고

한번에 보장 받으세요!

무배당 Super 큰병이기는보험

선택계약 — 암 진단비 2천만원
가입후 91일부터 보장하며 최초 1회한 지급
최초계약후 2년 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액의 50%만 지급. 기타 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상해·질병사망 2천만원
상해사고로 사망시 보장. 전문등반, 자동차/오토바이경기로 인한 사고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 참조
질병사망시 지급

기본계약 — 골절진단·수술 의료비용, 화상진단 의료비용 1천 5백만원 한도
상해로 약관에 정한 골절진단·수술, 화상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기본계약 (월납 단위: 원)			선택계약										
골절진단·수술, 화상진단 의료비용			암 진단비			상해사망		질병사망		합산 보험료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15~69세	13,230		30세	1,440	4,340	1,394	634	680	680	30세	16,744	18,684
			40세	4,060	9,760			2,180	1,100	40세	20,864	24,724
			50세	9,800	11,220			6,000	2,580	50세	30,424	27,444

1. 가입연령: 15~65세 2. 납입기간 ... 4.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환급금이 없음 5. 5년만기 자동갱신 상품으로 연령증가 및 위험률변동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골절진단·수술 의료비용, 화상진단 의료비용은 최대 90세까지(암 진단비, 질병·상해 사망은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1577-6428

걱정되는 치매에 목돈드는 암도!

75세 우리 부모님도 보험가입 된다고요?

치매간병비 3천만원 (최초 1회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시청각질환 수술비 50만원
시청각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

암 진단비 2백만원(최초 1회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골절·화상·장기 및 뇌손상 1천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화상·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명품부모님보험

기본계약 (월납 단위: 원)			선택계약									
Active 보험금			치매간병비(중증치매)			시청각질환 수술비		암 진단비 II		합산 보험료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50~89세	11,830		50세	620	1,650	190	210	2,000	2,470	50세	14,360	15,860
			60세	3,380	8,020	400	510	4,180	3,010	60세	19,410	23,070
			70세	19,690	40,020	960	1,290	7,220	3,530	70세	39,400	56,370

1. 가입연령: 50~75세 2. 납입기간 ... 4.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5.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 시청각질환 수술비, 암 진단비 담보는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1577-6427

Culture Place

◆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 ~6월 9일 / 샤롯데씨어터 / 마이클 리·박은태·윤도현·김신의·정선아 등
레미제라블 / ~5월 26일 /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 정성화·문종원·조정은·임춘길·박준면 등
그날들 / ~6월 30일 /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 / 유준상·오만석·강태을·최재웅·지창욱·오종혁 등
아이다 / ~28일 /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 / 소냐·차지연·김준현·최수형·정선아·이정열 등
헤drwig / 오픈런 / 대학로 아트원 씨어터2관 / 곽선영·홍지희·박은미·김경수·김보강·이정은 등
젊음의 행진 / ~6월 23일 / 코엑스아티움 현대아트홀 / 이정미·유주혜·이규형·김시권·박영진·최정화 등
친정 엄마 / ~5월 17일 /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 나문희·김수미 등
러브 인 뉴욕 – 롤 잇 재즈 / 6월 23일 / 성균관대 새천년홀 / 조효균·조지훈·박송연·이소순·박성순 등

◆ 연극

유럽 블로그 / ~5월 31일 / 대학로 문화공간 필링1관 / 김수로·채동현·강재범·성두섭 등
옥탑방 고양이 / 오픈런 / 대학로 틴틴홀 / 박은석·김형욱·송광원·열성안·박혜미 등
작업의 정석 / 오픈런 / 대학로 울래홀 / 김영빈·손승현·박정환·강효준·권온선 등
쉬어 매드니스 / 오픈런 / 대학로 문화공간 필링2관 / 이현철·서성종·정태민·김함진 등

◆ 콘서트

크라프트베르크 / 27일 / 잠실종합운동장 서문 돔스테이지
김경호 공존 / 27일 / 연세대학교 대강당
루시드폴 '다른 당신들' / ~28일 / 종로 반줄

◆ 전시

싸이트 인 씬 / ~6월 3일 / 세종문화회관 전시관1
사이언스 쇼 더 바디 / 오픈런 / 용산 전쟁기념관
오래된 빛이랑 / 5월 26일 / 북서울 꿈의숲 상상톡톡미술관

/정리=김민준기자 mjkim@

<조용필 19집>

미러클 '헬로'

명료한 사운드·청량한 멜로디 귀에 쏙쏙
쇼케이스서 가사 잊어버려 '인간적 매력'

<아이언맨 3>

파워풀 '히어로'

맨몸 격투신 비중 커져…펠트로 반전몸매
영화 기대반 우려반…흥행파워 여전할 듯

조성준·유순호 기자의 talk! talk! 신작

▶ 조용필 19집 '헬로'

조성준(이하 조) = 조용필의 19집 '헬로'는 그의 음악적 뿌리가 록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조용필의 음반들 가운데 최고의 명반으로 꼽히는 7집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보는데요. '어제 오늘 그리고' '미지의 세계' '여행을 떠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등이 수록됐던 당시와 비슷한 색깔을 띠면서도 사운드의 엄청난 진화를 과시합니다.

유순호(이하 유) = 정말 놀라운 건 7집이 발표되고 강산이 무려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목소리는 더 카랑카랑해졌다는 것이죠. 화려한 반주와 코러스가 곁들여진 보컬은 여느 신세대 가수들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입니다.

조 = 수록곡 대부분은 명료한 사운드와 청량감 넘치는 멜로디가 귀에 쏙쏙 박히는 아메리칸 팝·록 장르죠.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토토와 저니, 알이오(REO) 스피드웨건 등이 이 장르의 대표적인 뮤지션들이고 최근에는 마룬파이브가 계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용필의 이번 음반은 4050부터 2030세대까지 두루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유 = 사흘 전 쇼케이스에선 지나치게 긴장이 됐던 탓인지 '바운스'의 라이브 무대 도중 가사를 까먹는 '가왕'답지 않은 실수로 인간적인 매력까지 선사했습니다. 완벽주의자 조용필은 공연과 연습을 불문하고 작은 실수라도 벌어지면 '위대한 탄생' 멤버들과 스태프를 호통과 약간의 무력(?)으로 다스렸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썰렁했던 사건의 과거 탓인지 이날 실수에 관계자들은 어찌 웃음을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조 =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와 마지막 트랙인 '걷고 싶다'와 '그리운 것은'을 강추하고 싶네요. 록발라드 '걷고 싶다'는 드라마틱한 선을 전개, 기 남성적인 색채의 전환 플로를 보는 듯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그리운 것은'은 곡 전체에 그루브가 넘쳐 흐르는 덕분에 자미로콰이의 음악처럼 심지어(?) 흥겹기까지 합니다. 환갑을 넘긴 아티스트의 음악이라고는 믿기 힘들어요. 올해 63세인 조용필보다 서 살 많은 데이빗 보위의 신작 '더 넥스트 데이'를 얼마 전 들으면서 '우리나라엔 왜 이런 노장 가수가 없을까' 생각했는데,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싶어요.

유 = 젊어진 음악에 걸맞은 퍼포먼스도 기대해 봅니다. 쇼케이스 때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 모습으로 여성 팬들로 하여금 '귀요미'라는 탄성을 자아냈는데요. 한 단에 앞으로 다가온 콘서트에서는 신곡에 어울리는 시원한 헤드뱅잉이나 클럽 댄스를 기대하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요.

▶ 영화 '아이언맨 3'

조 = 25일 개봉된 '아이언맨 3'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공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 슈트 없이도 도덕적 인간으로 완벽하게 거듭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재력과 두뇌를 겸비했지만 난봉꾼에 가까웠던 그가 한 여자만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시골 소년과 유사 부자(父子) 관계를 맺기까지 하죠.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어쩌면 약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내중이 환비는 건 이전에 없는 슈퍼 히어로의 좌충우돌 활약상이기 때문이죠.

유 = 액션 장면에선 맨몸 격투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슈트를 입었다 벗었다 계속 반복하죠. 착용 방식이 훨씬 편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설정이지만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아이언맨'이 싸우는 모습에 열광하던 이들에겐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스타크의 연인인 페퍼(기네스 팰트로)의 액션 분량을 늘렸는데요. 한식 마니아에 채식주의자로 잘 알려진 팰트로의 잘 다져진 복근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팰트로의 공개하인 반전 몸매는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모 맥주 브랜드처럼 진한 뒷맛을 남깁니다.

조 = 종합해보면 3편은 '다크 나이트 라이즈'처럼 트릴로지(3부작)의 마지막이자 4편에서의 리부트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슈퍼 히어로물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이 시리즈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됩니다.

유 = 삼세번에 대한 우리 정서 때문인지 전작들에 비해 상대적인 약점이 있지만, 흥행 파워는 여전히 막강할 것 같습니다. 예매율이 90%에 육박한다니 일단 보고 판단하자는 분위기네요.

On Stage — 도발적 해석 '…수퍼스타' 감성 적시는 '아름다운 것들'

노래로 진한 감동을 전하는 뮤지컬 두 편이 관객과 만난다.

26일 샤롯데씨어터에서 개막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사진)는 '오페라의 유령' '캣츠'를 만든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손 작곡으로 이뤄진 송스루(대사 없이 노래로만 이뤄진 형식) 뮤지컬이다. 예수(지저스)의 마지막을 도발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돋보이는 록 오페라다.

특히 이번 공연은 천재 아티스트로 불리는 정재일이 음악감독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은다. 마이클 리·박은태·윤도현·김신의·한지상 등 가창력을 인정받은 스타들이 총출동해 웨버가 자신이 쓴 곡 중 최고 난이도라고 칭한 '겟세마네' 등 3~4옥타브를 넘는 명곡들을 들려준다.

24일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서는 포크음악의 대모 양희은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 '아름다운 것들'이 막을 올렸다.

라디오 특집 공개 방송을 배경으로 청취자들의 사연이 드라마로 재연되고 거기에 맞는 양희은의 노래가 어우러지는 형식이다. '아침이슬' '백구' '아름다운 것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등 히트곡 20여 곡이 선보여진다.

/박진영기자 ljsy5427@

전 세계가 기다린
퍼스트 클래스 시리즈!
Only on SCREEN
NEW
왕좌의 게임3
매주 금요일 밤 10시
2편 연속방송!
tcast
1st Class Movie Channel
SCREEN

박재범, 오초희와 '19금' 러브신

신곡 '웰컴' 뮤비 공개

박재범이 신곡 '웰컴' 뮤직비디오에서 새내기 글래머 오초희와 19금 러브신을 함작했다.

그는 25일 공개된 뮤직비디오에서 운동으로 다진 상반신을 드러내며 섹시한 매력을 발산했다. 베드신에선 오초희와 연인 사이로 변신해 끈적끈적하면서도 애틋한 느낌의 애정 연기를 선보였다.

오초희는 슬픔에 젖은 동안 외모와 풍만한 가슴선으로 이중적인 매력을 과시했다.

이 [illegible] 재난 [illegible] NL 코리아' 의 선투배로 두 달 전 오초희가 하차할 때 박재범이 합류했다.

한편 '웰컴'은 박재범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로 재치 넘치는 가사와 몽환적인 음색, 리드미컬한 비트가 돋보이는 알앤비 장르다. /조성준기자 when@

씨엔블루 싱글 오리콘 2위

씨엔블루가 24일 일본에서 발표한 다섯 번째 싱글 '블라인드 러브'로 오리콘 일간차트 2위에 올랐다.

첫날 3만5773장의 판매량을 기록한 이번 싱글에는 '블라인드 러브' '위드 유어 아이즈' '그리디 맨' 등 3곡이 수록됐다. '블라인드'와 '위드 유어'는 이종현, '그리디 맨'은 정용화의 자작곡이다.

[illegible] 를 진행 중인 씨엔블루는 7월 24~25일 홋카이도 공연을 비롯해 나고야·후쿠오카·도쿄·오사카 등 5대 도시의 제프 공연장에서 10차례 콘서트를 개최한다.

'젠틀맨' 머잖아 '사골맨'

싸이 빌보드 1위 위해 미국 출국… "톱5 유튜브빨 맞아요"

월드스타 싸이가 빌보드 정상 등극에 대한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싸이는 '젠틀맨'으로 빌보드 핫100 5위라는 성적을 받아든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공항에서 그는 "5위는 네티즌 용어로 '유튜브빨'이 맞다"면서도 빌보드 순위 상승을 위한 음원·방송·유튜브 등에서의 치밀한 전략을 일부 공개했다. '강남스타일' 당시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빌보드 정상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아이튠즈 순위가 내려가고 있어 다음주엔 (빌보드 순위가) 좀 떨어질 것 같다"면서도 "유튜브 조회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라디오나 TV 등 언론매체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면 아이튠즈 순위의 재상승이 기대된다. 모두 다 오르는 데 2~3주 걸릴 것 같다.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 도착과 동시에 1개월간 집중적인 방송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트라이베카 영화 페스티벌'에서 혁신상을 받는 것으로 현지 프로모션을 시작한다. 다음달 3일 뉴욕 록펠러센터에서 열리는 NBC '투데이쇼' 공연도 잡혀 있다.

25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의 원정경기에 등판하는 LA 다저스의 류현진과의 만남도 계획돼 있다.

싸이는 "'젠틀맨'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굉장히 좋다. 이번에는 방어하는 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애('젠틀맨')가 만만치 않게 공격을 하는 상황이라 기분이 좋다"며 "'사골스타일'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강남스타일'처럼 '젠틀맨'도 서너 달을 부르며 '사골맨'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가수 싸이가 미국 프로모션을 위해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칸영화제 장편경쟁 심사위원에 키드먼 등 할리우드 스타 '장악'

다음달 개막될 제66회 칸 국제영화제 장편 경쟁 부문 심사위원단으로 니콜 키드먼과 크리스토퍼 왈츠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대거 나선다.

영화제 측이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심사위원단 명단에 따르면 키드먼과 왈츠를 비롯해 '라이프 오브 파이'의 이안 감독과 일본 여성 감독 가와세 나오미, 프랑스 연기파 배우 다니엘 오테유, 루마니아 감독 크리스티안 문주, 인도 여배우 비드야 발란 등이 포함됐다.

앞서 심사위원장에는 할리우드 '흥행 제조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위촉됐다.

이들은 19편의 장편 경쟁 부문 진출작들을 심사해 최고의 영예인 황금종려상과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 등을 가린다.

심사위원단의 면면으로 볼 때 할리우드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는 올해 영화제는 다음달 15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의 휴양도시 칸에서 펼쳐진다. /조성준기자 when@

니콜 키드먼 · 크리스토퍼 왈츠

사극 '천명' 첫방 시청률 9.3% 순조

KBS2 새 수목 사극 '천명: 조선판 도망자 이야기'(이하 '천명')가 시청률 9.3%로 출발했다.

25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의 집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천명' 첫 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9.3%로, 시작과 함께 MBC '남자가 사랑할 때'(10.5%)에 이어 같은 시간대 2위를 차지했다.

전작 '아이리스 2'의 마지막 회(10.4%)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돌림병을 앓는 딸을 위해 도망자가 된 의관 최원(이동욱)의 사투가 도입부부터 긴장감을 자아내며 호평을 이끌어냈다.

한편 SBS '내 연애의 모든 것'은 자체 최저치인 4.7%에 그쳤다. 첫 회에 비해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조성준기자

윤상 '팝스팝스' DJ하차 후임에 뮤지션 버벌진트

싱어송라이터 윤상이 3년간 진행해온 KBS2 쿨FM '팝스팝스'를 떠난다.

제작진은 25일 "2010년 4월부터 마이크를 잡았던 윤상이 음악 작업을 위해 하차하고, 힙합 뮤지션 버벌진트가 다음달 1일부터 후임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데뷔 12년 만에 처음으로 DJ를 맡은 버벌진트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청취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상 · 버벌진트

YES24.COM 예매순위

순위	영화	예매율
1	아이언맨 3	44.68%
2	에반게리온 Q	11.6%
3	전설의 주먹	8.18%
4	송포유	6.33%
5	오블리비언	5.95%

자료제공: movie.yes24.com(4월 25일 14시 집계 기준)

4월 4주 엠카운트다운 TOP 10 순위

유쾌·상쾌·통쾌 계약직 미스김

대중문화계 고드는 비정규직 고용 다룬 '직장의 신' 공감백배… 웹툰 '미생'도 인기

대중문화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에 잇따라 눈을 돌리고 있다.

만능 계약직 사원 미스김(김혜수)의 활약을 코믹하게 그린 KBS2 월화극 '직장의 신'이 비정규직 문제를 정면에 내세워 직장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시간 외 근무로 건당 수십만원씩 챙기는 미스김은 판타지에 가까운 캐릭터이지만,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비정규직의 애환을 날카로운 풍자로 꼬집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 초 방영된 SBS '청담동 앨리스'와 KBS2 '학교 2013'의 여주인공은 각각 의류회사 계약직과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였다. 프로 바둑기사를 꿈꾸던 주인공이 대기업에 계약직으로 들어가면서 겪는 일화를 그린 웹툰 '미생'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뿌리를 내리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노동 환경을 대중문화가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중문화 상품이 비정규직 문제에 주목하는 현상과 관련해 일단은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직장의 신'은 이 문제를 디테일하면서도 적절하게, 그러나 부담스럽지 않게 다룬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으론 따끔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국문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는 건 바람직하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 "특히 최근 등장하는 드라마들에 비정규직이 왜 양산되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짚어주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을 다룬 작품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이를 단순히 여주인공의 처지나 로맨스 등 극적 장치로만 활용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 실제 비정규직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제작진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박선영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직장의 신 · 학교 2013 · 청담동 앨리스

metrosports

장원삼 10K '삼성 3연승'

옥스프링 1698일만에 감격승

날아다 행복한 턱돌이 25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넥센과 두산의 경기에 앞서 넥센의 마스코트 턱돌이가 경희대 우토리를 위해 시구 장소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의 장원삼이 2년 연속 다승왕을 향해 순항하며 팀을 3연승으로 이끌었다.

2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장원삼은 선발로 나와 7⅔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솎아내고 1점만 주는 빼어난 투구로 2-1 승리를 견인했다. 삼성의 수호신 오승환은 9회 1사 만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장원삼은 올 시즌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펼치며 지난해 17승 기록 경신을 노리게 됐다.

1-2로 끌려가던 LG가 9회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다. 선두 박용택이 깨끗한 중전 안타로 나가자 보내기 번트가 이어졌다. 손주인이 때린 타구는 3루수 앞으로 느리게 굴러 내야 안타가 됐고, 정주현이 투수와 유격수 사이를 느리게 흐르는 내야 안타로 1사 만루 기회를 이어갔다.

통산 세이브 1위를 달리는 오승환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다. 최영진을 몸쪽 낮은 직구로 삼진으로 잡고 한 숨을 돌린 그는 이대형에게 볼 카운트 1볼 2스트라이크에서 복판에 높은 돌직구를 꽂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경기를 끝냈다.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롯데는 선발 크리스 옥스프링의 호투를 발판 삼아 SK를 6-0으로 제압하고 2연승을 달렸다.

5년 만에 한국 무대로 돌아온 롯데 선발 옥스프링은 7이닝 동안 삼진 8개를 곁들이며 무실점으로 SK 타선을 꽁꽁 묶고 3패 후 첫 승을 신고했다. 옥스프링은 2008년 8월 31일 한국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둔 이래 4년 7개월 24일 만에 다시 승리를 맛봤다.

선두 KIA는 19안타를 몰아쳐 최하위 NC를 11-4로 대파했다.

목동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넥센의 경기는 10회 연장 접전 끝에 두산이 6-3으로 승리를 거두며 2연패를 설욕했다. /유순호기자

추신수 나이스 플레이! 추신수가 25일 열린 시카고 컵스전에서 4회 초 수비 때 앤서니 리조의 홈런성 타구를 점프해 잡아내고 있다 /AP 연합뉴스

홈런 타구 건어내다

추신수 멀티히트에 수비까지

'톱두 기계'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시즌 12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을 34로 늘렸다.

추신수는 25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때리고 타율을 0.392로 끌어올렸다. 출루율은 0.534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부동의 선두를 달린 가운데 안타도 31개로 현재까지 1위에 올라있다.

추신수는 1회부터 상대 선발 제프 사마르지아의 시속 151㎞짜리 투심 패스트볼을 때려 안타를 날렸다. 3회 삼진, 5회 유격수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7회 중전 안타를 추가했다.

4회 초 수비에서도 앤서니 리조의 머리 위로 넘어가는 타구를 달려가서 잡아내며 홈 팬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신시내티는 토드 프레이저의 솔로포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김민준기자

이시영 편파판정에 태극마크 획득?

상대 선수측 "심했다" 주장 | 심판 "오픈블로 많아"

여자 복싱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배우 이시영(31)에게 패배한 김다솜(19)의 소속 수원태풍무에타이체육관이 "편파 판정으로 태극마크를 빼앗겼다"며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에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락환 관장은 25일 "오픈블로(손바닥 부위로 치는 것) 경고를 받았는데 대부분 정확히 펀치가 들어갔다. 유효타도 더 많이 때렸는데 판정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다솜은 전날 충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여자 48㎏급 결승에서 이시영에게 20-22 판정으로 패배했다. 2라운드까지는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3라운드부터 판정 점수에서 밀리며 태극마크 획득에 실패했다.

최 관장은 "상대 선수가 유명 배우여서 판정이 한쪽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너무 치우쳤다. 편파 판정을 예상해 KO로 이기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김다솜이 너무 아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다솜 측이 복싱연맹에 항의를 하더라도 경기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아마추어 복싱에서는 경기 후 30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경기를 두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심판들이 이시영에게 유리한 판정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시영(오른쪽)과 김다솜이 24일 복싱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48㎏급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 모습

이에 대해 이 경기 주심을 봤던 조종득씨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인파이팅을 한 김다솜 선수가 이겼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마추어 복싱에서 공격성은 점수를 주는 기준이 아니다"며 "김다솜은 오픈블로가 많았다. 3번째 주의에서 경고를 줬어야 하는데 오히려 4번째에서야 경고를 줬다"며 판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민준기자 mjkim@

레반도프스키 4골 '원맨쇼'

도르트문트, 레알 마드리드 4-1 완파

폴란드 출신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25·도르트문트)가 혼자 4골을 넣는 '원맨쇼'를 펼치며 세계 축구 팬에 이름을 알렸다.

레반도프스키는 25일 독일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의 2012~201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전반 7분 선제골을 시작으로 후반 3골을 넣는 포커트릭을 펼치며 팀의 4-1 완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3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레버쿠젠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5골을 넣어 최다 기록을 세웠지만 역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4골을 터트린 것은 레반도프스키가 유일하다.

이날 4골을 추가한 레반도프스키는 10골을 쌓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11골)에 이어 득점 2위에 올랐다. 메시(8골), 토마스 뮐러(7골·바이에른 뮌헨)가 3, 4위로 뒤를 잇고 있다.

호날두는 이날 1골을 추가했지만 레반도프스키의 원맨쇼와 소속 클럽의 완패로 초라해졌다. /김민준기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도르트문트)가 25일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4번째 골을 넣고 손가락 4개를 펴 보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스포츠브리핑

■ 수아레스 10경기 출전정지

경기 중 상대 선수의 팔을 깨문 '핵이빨' 루이스 수아레스(26·리버풀·사진)가 1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수아레스는 22일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첼시전에서 후반 20분 자신을 밀착 마크하던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의 팔을 물어 뜯는 엽기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수아레스의 행동을 잘 보지 못한 심판은 구두로 주의를 줬지만 TV를 통해 이를 지켜본 팬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25일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3경기 출전정지 징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수아레스의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 다저스 연장 10회 만루포 허용

LA 다저스가 25일 열린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전에서 연장 10회말 만루 홈런을 내주어 무릎을 꿇었다.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등판한 다저스 선발 테드 릴리는 5이닝 동안 6피안타 2볼넷 1실점으로 메츠 타선을 틀어막았지만 불펜 투수들이 난조를 보여 9회말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 3-3으로 맞선 10회말 1사 만루에서 조다니 발데스핀에게 만루포를 내줘 3-7로 졌다.

■ 토트넘 손흥민 영입 포기

토트넘이 함부르크 SV 공격수 손흥민(21)의 영입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미국 매체 월드스포츠는 25일 "토트넘이 한국 국가대표 손흥민을 스쿼드에 포함하려던 관심을 접었다"며 "토트넘이 손흥민을 좋은 선수라고 평가하지만 전술 시스템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선수를 찾기로 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외에 아스널, 리버풀, 맨체스터시티, 도르트문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야구 전적

■ 잠실

팀				
삼성	010	000	100	2
LG	000	010	000	1

■ 목동

팀					
두산	102	000	000	3	6
SK	100	200	000	0	3

■ 사직

팀				
SK	000	000	000	0
롯데	210	001	02X	6

■ 마산

팀				
KIA	042	000	203	11
NC	010	002	100	4

북유럽의 빛깔로 가득한, 가장 요 네스뵈다운 스릴러!
냉혹하고 대담하다! 해리 홀레 시리즈의 붉은 심장과도 같은 소설!